

- 디스플레이 혁신플랫폼 구축
-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DP 혁신공정 플랫폼으로 日 수출규제 넘는다

(디스플레이)

2025년까지 5281억 투입해

OLED·플렉서블 플랫폼 구축

천안 TP 내 혁신공정센터 건립

3630억 투입, R&D 66개 과제 추진

DP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

양 지사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

소재 기업 기술 주제 발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기반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R&D 분야에서는 3630억 원을 투입해 ‘비진공 기반 플렉시블 OLED 봉지막 형성 장비’ 등 66개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2월 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는 558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충남은 국내의 54.3%, 세계의 2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발표로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이한 상황이다.

양 지사는 최근 충남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워크숍에 참석, “이번 사태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제고의 대전환점으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산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협업하고, 산업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산 소재·부품의 테스트베드로서 국산 장비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이행 실적)를 쌓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계획대로 구축돼 가동하면, 정책적으로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 격차 5년·기술 격차 3년 이상 확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며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0

충남도가 지난해 예타 통과로 본궤도에 오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에 따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어설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을 차세대 핵심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재편, 디스플레이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와 산업부가 공동 기획해 충남테크노파크와 디스플레이산업 협회가 수행 중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차세대 OLED·플렉서블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 목표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융복합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차세대 기술을 통한 초격차 확보 ▲혁신소재·공정을 통한 초저원가 실현 등이다.

혁신공정센터는 1651억 원을 투입, 천안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립하고 61종의 장비를 설치해 장비·



“역사의 시간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창작뮤지컬 ‘워치’의 시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

## 윤봉길 의사 다룬 창작뮤지컬 ‘워치’ 첫선

사실·허구 재구성한 팩션뮤지컬

윤봉길의사기념관서 제작발표

오는 9월 첫 공연 막 올라

충남도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시민의 숲에 위치한 대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 뮤지컬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제작진과 출연배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뮤지컬 시연, 기자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창작뮤지컬 ‘워치’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미래가치로 이어가기 위한 작품이다.

워치는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팩션(Faction) 뮤지컬로, 사실과 허구를 흥미롭게 재구성했으며 고증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최소화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주인공 조성운(윤봉길 역), 정원영(박태성 역), 스테파니(구혜림 역), 황만익(김구 역) 배우 등이 참여해 3곡의 수록곡을 시연했다.

양 지사는 “최근 일본이 불공정한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윤봉길 의사와 독립지사들의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워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워치’는 오는 9월 10~15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첫 공연을 펼치며, 9월 26일 도 문화예회관, 10월 2일 예산군 문화예회관에서 잇따라 공연한다.

●문화정책과 041-635-3817

## 충남 인재 우선 채용 ‘길 열렸다’

법률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기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우선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도 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안소위 직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역 인재 채용 소급적용’ 관련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으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 역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충남의

젊은이들이 충청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법안소위가 이 규정을 연말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4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인재의 취업문이 넓어진 것.

한편 양 지사는 이날 소위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정책과 041-635-4629

/손유진 syj0319@korea.kr

## ‘10만 양병’ 프로세서, 충남형 실리콘밸리 세운다

도정 톨아보기

日경제보복은 壬亂 기시감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위한

공정플랫폼, R&D지구 조성

위기를 기회로, 超역량 프로세서

임진왜란은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위기를 초래하느냐, 대비하느냐의 문제다. 이이의 10만의 양병설을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다. 국가위기관리 무능력이다.

반면에 조선의 운명을 바꾼 파격 인사가 있었다. 침략의 징후를 느꼈던 선조의 이순신 등용이다. 임란 반발 14개월 전 중 6품 현감이던 이순신을 종3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한 것이다. 여진족 후미를 공격해 50명의 백성을 구출

하는데 성공한 이순신의 기백을 높이 산 것이다. 이순신 등용은 조선의 운명의 끈이 된다. 이순신은 빈틈을 용납하지 않고 전력투구한다.

아베 일본 총리의 수출규제 보복은 임진왜란, 식민침략의 기시감이 다. 대비는 빈틈을 메우고 아픔을 견디게 한다. 충남도는 ‘충남형 10만 양병 프로세서’ 구축으로 맞선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습격에 경제 근육 키우기다. 충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OLED·플렉서블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공정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미래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견인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이다. 이곳에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첨단 제조

업과 국가기간산업의 역량을 결집시킨다. 충남 컨벤션센터도 세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 스타트업 전시회장을 만들고 향후 기업간 거래(B2B) 전문 센터로 거듭난다. 충남형 실리콘밸리라 해도 무방하다. 양승조 지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메카로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충남은 또 ‘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금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190억 원을 투입해 금속소재산업의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10만 양병’의 전초기지가 충남에 세워지고 있다. 충남의 산업경쟁력 산실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첨단산업 근육강화 프로세서라 하겠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당진시 석문산단 전경

## 기업유치 힘입어...석문산단 분양 '날개'

민선 7기 기업유치로 분양률 급상승  
86개 유치, 연내 50% 돌파 기대

‘고질적 미분양 산업단지’로 꼽히던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민선7기 출범 이후 날개를 펴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 20년 넘도록 20% 초에 머물던 분양률이 도의 잇따른 기업유치에 힘입어 연내 분양률 50% 돌파를 넘보고 있다.

석문산단은 1991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당진시 석문·고대면 일원 452만 6000㎡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민선7기 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분양률은 24.5%에 불과했다.

석문산단이 ‘고질적 미분양 산단’

꼬리표를 댄 것은 지난해 10월 LG화학 유치가 계기가 됐다. LG화학은 도와의 MOU를 통해 석문산단 내 23만 8368㎡의 부지에 2021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 미래 유망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문산단 분양률은 22.7%에서 32.7%로 급등했다.

석문산단은 지난달까지 139만 9000㎡가 분양돼 분양률 34.5%를 기록 중이다. 기업체는 86개사로, 24개사가 가동하고 있고 36개사는 건설 중이며, 나머지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도가 한영철강공업을 석문산단에 유치하며 분양률은 40.5%로 급상승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국가기간산업과 앵커기

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가 유치를 추진 중인 국가기간산업이 올해 말 석문산단 입주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석문산단 분양률은 50%를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가장 큰 산단인 석문산단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제조업 불황,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분양이 저조했으나, 민선7기 들어 대규모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며 비상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분양 방안을 찾고, 국내외 기업 대상 유치 활동을 강화해 미분양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94

## 국민신청실명제로 도민 ‘알 권리’ 지킨다

22일부터 한 달간 접수

충남도가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과제 선정에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신청 제도다.

접수 대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의 모든 사업으로,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실명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도 누리집·우편(도청 정책기획관·전자우편(ashinn@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하며,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정보 공개포털 및 도 누리집 등에 등록·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도정현안, 국정과제, 국민신청사업 등에 대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 041-635-2116

### 도정만평

설인호



## 상반기 657건 계약심사...138억 절감

과소설계엔 16억 증액 등  
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철저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종영)가 올 상반기 각종 계약 심사를 통해 1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도 감사위는 올 상반기 공사, 용역, 물품 등 657건(4526억 원)에 달하는 계약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237건 101억 원 ▲용역 183건 27억 원 ▲물품 237건 10억 원 등이다. 이는 설계 항목별로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새어나가는 예산을 찾아 낸 것이다.

도 감사위는 단순히 심사를 통해 금액만 한 것이 아닌, 과소 설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실제 계룡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2건에 대해선 16억 원을 증액하는 등 부실 용역·공사 등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 3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관리 미흡 사례 39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다. 이를 통해 23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입주민이 낸 소중한 관리비 낭비를 막았다.

또한 계룡시 종합감사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억 원 부과 누락사례를 적발, ‘감사를 통해 돈 버는 감사’를 하는 등 감

사요원의 자질과 역량도 크게 향상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행정의 다원화와 효율성 증시로 민간 위탁이 활성화됐으나 장기위탁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형식적인 위·수탁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돼 위탁협약 전 비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개선했다”며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물론, 민간에 위탁 사업까지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계약 심사를 민간 위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을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041-635-5423

### 위생시설 개선 용자 지원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충남도가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용자 사업을 연중 실시 중이다. 현재 시설개선자금 용자를 지원 중인 식품위생사업소는 보령·금산·서천 등 도내 3개 시·군 4개 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 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 5억 6000만 원의 31.25% 수준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위생시설 ▲향토특색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수

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용자를 지원한다.

용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보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용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용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 “숫검댕이 아기 얼굴에 발라 무사 염원”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③아기의 첫 외갓집 나들이 풍경

“술단지 밑에 숫검댕이를 굶어다가 아기의 이마나 목뒤, 혹은 얼굴 전체에 발라준다.”

“아기의 옷 뒷고대에 바늘로 붉은 고추를 저며 주거나 바늘만을 저미기도 한다.” 또는 “바늘에 실을 걸어둔다.”

“외가에 도착해서도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돌아올 때 다시 입혀서 온다.”

충남의 섬마을을 다니면서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옛날 며느리들은 아기를 데리고 친정 갈 때, 아기가 무탈하게 다녀오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는 대부분 시집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 아기 엄마는 아기가 조금 큰 이후에야 친정

으로 나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은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새 생명을 마주할 수 있었다.

열악한 육아환경에서 첫나들이는 마음 졸이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과거에는 의료혜택이 미비하여 각종 질병에 속수무책이었는데, 더구나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겐 치명적이었다. 요즘처럼 분유조차도 원활하게 보급되지 못했다.

혹여 나들이를 가서 아기가 아프기

라도 하면 사돈댁에 면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친정식구들을 생각하면 나들이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탈이 없도록 요행만 바라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들이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나들이를 해야 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거나 차단하려는 의지’ 사이에 일종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섬마을 할머니들이 이야기한 숫검댕이는 나무나 그 무엇 등이 타고 남은 찌꺼기로, 불[火]의 생명력이나 정화(淨化)·축귀(逐鬼)의 기능, 파괴의 힘 등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늘은 가느다랗고 끝이 뾰족한 금속으로, 형질을 뚫고 꿰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바늘의 찌르는 기능을 잡귀를 쫓는데 이용한 것이다. 고추는 붉은 색과 매운 맛으로 잡귀잡신을 쫓는데 가장 흔히 이용되는 액막이 상징물이다.

이렇듯 첫 나들이에 아기의 얼굴을 흉하게 위장하거나 몸에 잡귀나 재액을 쫓는 상징물을 부착한 것이다. 이는 새 생명인 아기를 온전히 키워내려는 우리 겨레의 마음이 이러한 의례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 '가속도' 낸다

### 강소특구 전략·과제 도출 컨벤션센터 수요 발굴 '집중'



충남 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미래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견인을 위해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의 핵심 사업인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충남 컨벤션센터'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신규 전시 수요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는 산업융합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미래기술융합센터 건립 ▲강소특구 지정 등 8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 ■강소개발연구특구

자생·자족적 지역 혁신플랫폼 지정 시 세계 감면·사업비 지원 내달 말 과기부 특구 지정 신청  
강소특구는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연구개발(R&D) 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 기업·첨단기술 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개발행위 의제 처리,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대한민국과 충남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첨단제조업과 국가기간산업의 역량을 결합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구심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도의 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은 '미래 자동차·스마트 모빌리티의 엔진,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2029년까지

입주기관 200개, 창업 기업 매출 8300억, 원, 연구소 기업 20개, 벤처기업 1400개, R&D인력 5000명, 특허출원 5000개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도는 과학 사업화까지 포괄하는 사업화 프로세스 구축, 엑셀러레이팅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 구축,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사업 및 특구사업 활용·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등의 전략을 세웠다.

도는 전략 실현을 위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술 사업화 전담 행정기구 신설 ▲기술 사업성 검증센터 설치 및 운영 ▲연구성과의 후속 연구 프로그램 개설 ▲기술 사업화 플랫폼 공동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다음 달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 ■충남 전시컨벤션센터

### 2022년까지 1939억 투입해 건립 R&D 집적지구 랜드마크 기대 기업간 거래(B2B) 전문 센터로

충남 컨벤션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19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내 4만 5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 1900㎡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컨벤션센터는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충남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안에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자동차 부품산업 전시회 ▲석유·화학산업 전시회 ▲충남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을 신규 창출 전시회로 제시한 바 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LH와 R&D집적지구 부지조성 관련 협약을 맺고,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초 착공하며, 컨벤션센터는 내년 3월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고, 타당성 용역을 마친 과학기술진흥원은 내년 출범키로 하는 등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충남 컨벤션센터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의 랜드마크가 돼 R&D집적지구 성과를 공유·홍보하고, 기업간 거래(B2B) 전문 센터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강소특구는 충남의 R&D 역량 강화와 혁신 성장동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도는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과 041-635-3956

## 충남 문화·관광...중국에서 먹힐까?

### 중 3개성 TV 방송사 초청 도내 '멋과 맛' 알리기 나서

중국 장쑤성을 비롯한 주요성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텔레비전(TV)을 통해 충남의 문화·관광과 백제 역사를 눈에 담는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중국 장쑤성, 산둥성, 구이저우성

TV 방송사를 초청해 문화·관광 및 유적지 캠퍼를 추진했다.

이번 캠퍼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충남의 관광지 소개를 통해 멋과 맛을 알리고, 역사를 중국인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성 특별취재팀은 첫날인 17일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도정 현황을 청취하고, 18일 태안 천리포 수목원 취재를 시작으로 서산 해미읍성, 간월

암 등 충남 곳곳을 카메라에 담는다.

19일에는 서산 대산항과 중국 위해항, 룡연강(龍眼港, 용안항)을 오갈 국제여객선 취항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에 따른 '중국 관광객 이용설명서'를 제작한다. 오후에는 백제의 역사를 중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부여군 백제문화단지과 낙화암, 부여 공남지 등을 취재한다.

나흘째인 20일에는 보령머드축제 현장을 찾아 충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공보관실 041-635-4914

## 공공갈등 해결 위한 지혜 모은다

### 제5기 갈등관리 심의위 위촉

충남도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5기 갈등관리 심의 위원'을 위촉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김은나 도의원(천안8)을 비롯한 박경렬 우송정보대 교수 등 20명(민간 15명, 실·국장 5명)의 각계각층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까지 2년간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과 관리대상 지정 등을 심의·자문하고, 도·시군과

주민 간 갈등 현장에서 컨설팅 등 조정 활동을 벌이게 된다.

양 지사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상당수 도민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며, "민주적이고 성숙한 갈등 예방과 해결로 더 행복한 충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공공갈등 관리대상은 가족분노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등 총 21건(중점관리 4건, 부서자체관리 17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체정책관 041-635-3664

## 지방자치의 첫 걸음, 하향식 '지방정부' 규정화부터

### 주민참여로 우리 삶을 바꿉니다

### ③ '지방정부', 명칭 변경의 의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은 하드웨어적 측면인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헌법, 법률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종속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자율적 개념인 '지방정부'로 변경·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분권과 자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이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3월 26일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활발해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부결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연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

치권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실정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순응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과거 지향적 행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면, 정당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당성 측면에서 '지방정부'로의 용어 변경 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수평적·자율적 위치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상징적 선언으로, 미래지향적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정부'로 공식화할 때, 1단계 분권에 이어 2단계 자치가 촉진될 수 있다. 즉 수평적·자율적 개념인 '지방정부' 명칭은 수직적·종속적 속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비해, 법규 등에서 분권을 촉진하고 이를 근거로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규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 한 연구는 '지방정부'의 수평적·자율적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더 분권과 자치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의 뿌리가 깊어,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등 상향식 풀뿌리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조급한 발상이라며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규에 '지방정부'로 변경을 하여 정당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을 제고하는 노력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 등 중앙정부 영역에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영역에서도 좀 더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 규정화를 현실화하는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반영 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양승일 충남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2019 충청남도 자치분권 사진공모전**  
우리 동네 사진을 찍어볼까

응모자격 누구나 가능  
접수기간 2019. 7. 10(수) ~ 9. 27(금)  
응모방법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모전 사이트 작품 등록

# 국산 특허기술로 충남 4차산업 교두보 탄탄대로



기능성테이프로 삼성·LG 거래  
모바일폰·디스플레이 등에 적용  
‘체온감응형 고분자소재’ 특허



고세운 대표가 자사 제품인 기능성 테이프를 소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는 558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국내 시장의 54.3%, 세계의 23.2%를 점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부품소재 기업들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충남 경제에도 먹구름이 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때문이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기능성 테이프 생산기업인 ㈜캠코와 같은 중소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캠코(대표 고세운)는 지난 2010년 천안 백성동에서 문을 연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생산 기업이다. OLED 패널 등 각종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기능성 필름과 산업용 접착제를 생산하며 LG, LG Display, 삼성, SDC, 3M,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다.

캠코의 강점은 모바일폰과 디스플

레이에 필요한 각종 기능성 테이프의 원천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의 방수·방열, 전자부품 합지 및 부품 보호, 디스플레이 반사시트 고정, 자동차 내부시트, 스크린도어, 브라켓 고정용 등 부품별 맞춤형 제작을 통해 디스플레이나 모바일폰 완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과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주)캠코는 지난해 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휴대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1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세운 대표는 “부품 소재 성격의 테이프는 전기도 통해야 하고 빛도 차단해야 하고 열도 식혀야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삼성이나 엘지 같은 대기업은 리드타임이 무척 짧은 편인데 이들 대기업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해외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동종 업체들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S·노트 시리즈에 당사의 필름이 사용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삼성의 전략품목인 5G갤럭시X와 폴더블 폰에도 당사 제품이 사용되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모바일폰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팩과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유전율이 낮은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전용 테이프 생산 기술과 새

차증후군을 없앤 친환경 테이프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캠코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캠코가 개발한 ‘체온감응형 고분자 소재’는 사람의 체온에서 반응하는 물질로 지난 4월 FDA로부터 인체유해물질검사적합관정을 받았다. 이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흡수율이 높아 약물이나 투여제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캠코는 체온감응형 고분자 소재로 이미 국내에서 4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품 상용화를 위한 각종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마스크팩과 같은 화장품에 적용할 경우 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업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고 대표는 “일반 산업용 테이프 생산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IT분야와 바이오 화장품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복합성 소재 개발로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안전한 인삼 유통...도매시장부터 꼼꼼히 챙긴다

생산·유통 체계 구축 논의  
안전성 검사·실명 거래 강화 등  
시장 상인들과 토론회 가져

충남도가 고려인삼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소매 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16일 금산수삼센터에서 인삼 도매 시장 및 소매시장 상인들과 안전성 관리대책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인삼 안전성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생산실명제,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확인서 등 수산 유통인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통인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 종사자, 제조기업 협력과 유통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통시장에 반입되는 인삼에

대해 도매시장에서 안전성검사를 우선하고, 실명 확인 후 거래하도록 하는 유통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인삼산업계의 현안을 반영, 고려인삼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해 안전성 관리에 집중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삼 생산자 및 유통인도 안전한 인삼 생산과 유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7742



여름을 맞아 인삼 열매가 빨갛게 익어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도민이 만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 공모

40세 이상 69세 이하 新일자리  
지역 자원 활용 자립기반 마련

충남도는 주민이 만들고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제2차 주민 발안형 일자리사업’ 아이템 공모를 시행한다.

주민 발안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민 주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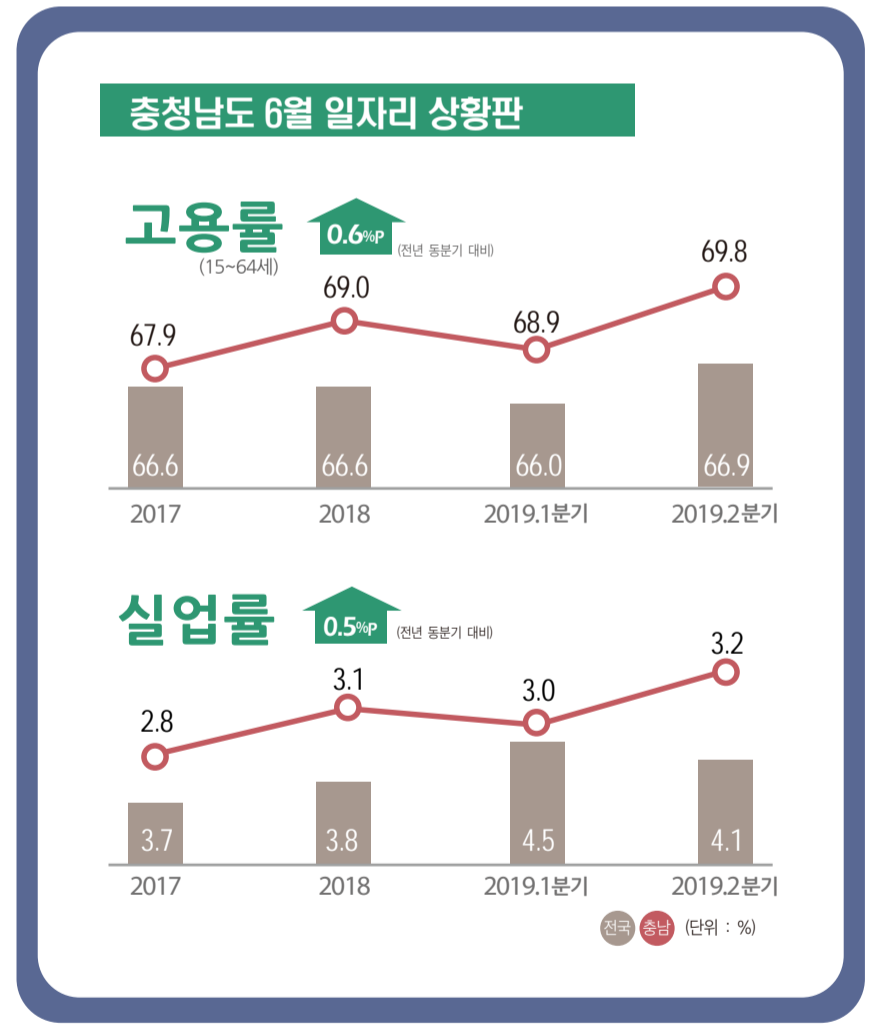
신 직업 및 신일지리를 발굴,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중장년 계층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0세 이상 69세 이하이다.

공모 방향은 ▲지역민이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 사업 ▲신직업·신중년 직업 및 도내 여건에 맞춰 활성화 가능

한 일자리 ▲주민이 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컨설팅 후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발안형 일자리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공모 내용을 토대로 시·군 자체검사를 거쳐 사업 평가 및 사업을 선정한다.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1



## 중소기업 무료 에너지진단 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희망 기업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에너지진단 이후 개선이 용이하고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를 중심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비용의 50% 이내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등 윈스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에너지사용량(전년도 기준)이 2000toe미만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내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과 041-635-3458



# 해저터널·교량 마침내 연결...서해 교통축 바꾼 국도 77호선

## 영목항~원산도~대천항 연결

1시간 50분 → 10분대 단축

세계에서 다섯 번째, 국내에선 가장 긴 해저터널이 지난 10일 관통됐다. 201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6년 7개월 만에 보령시 신항동과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6.927km 길이의 보령 해저터널이 맞닿으면서 파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서해안을 따라 내려와 남해안을 감싸 돌며 국토 반 바퀴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이 마침내 연결된 것. 2021년 3월, 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 1시간 50여 분이 걸리던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 대천항 간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돼 서해안 新 관광벨트가 구축될 전망이다.

## 바다 위를 가로지른 연륙교 해저 관통한 국내 최장 터널

2021년 서해안 지도 '다시 쓴다'

태안 안면도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거쳐 신항동을 잇는 국도 77호선 연결구간은 총 14.1km로, 총 사업비 68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1공구(보령 대천항~원산도) 6.9km는 해저터널로, 2공구(원산도~태안 영목항) 1.8km는 연륙교로, 나머지 5.4km는 접속도로 구간으로 건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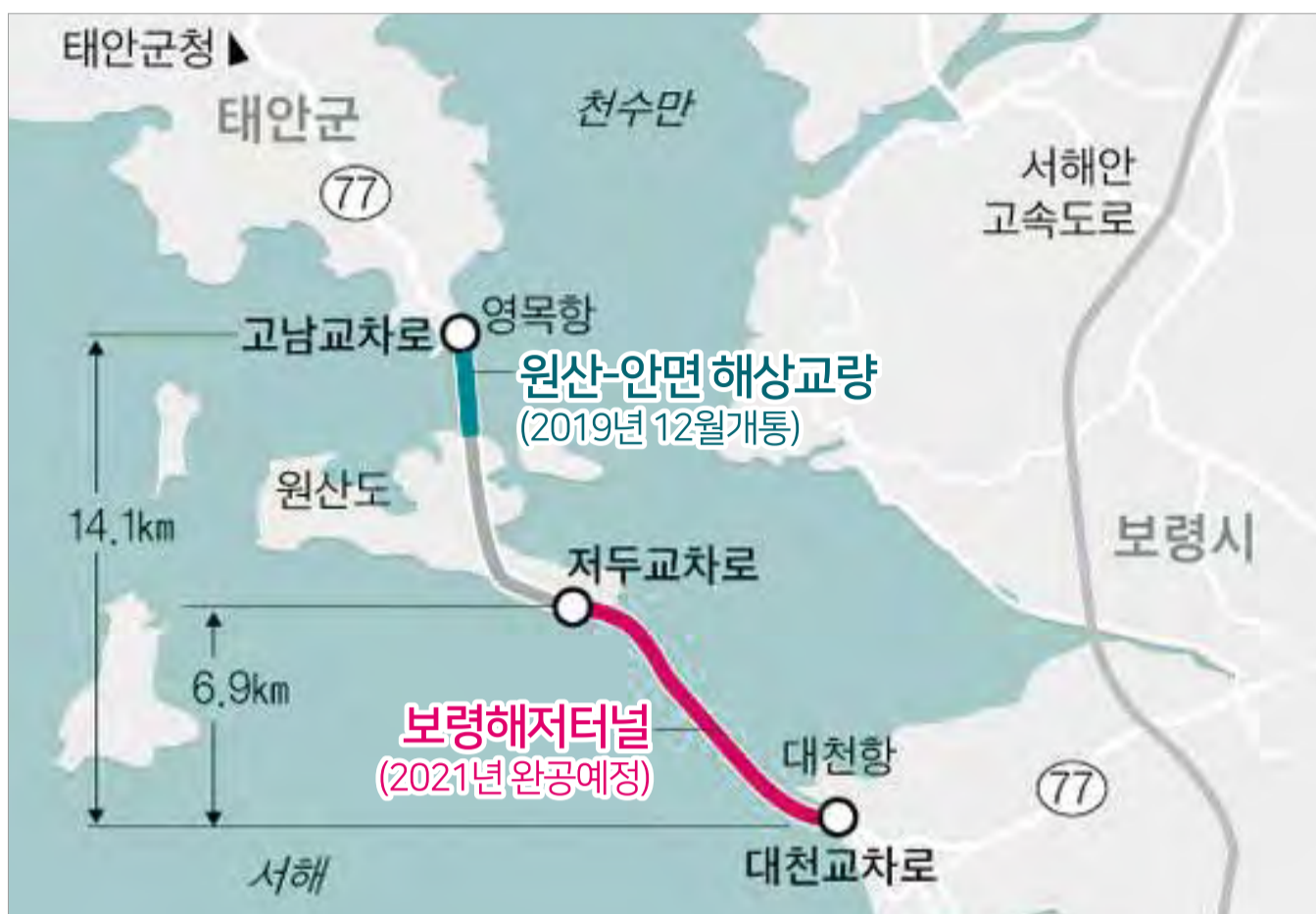
전체 구간 중 해상교량은 완공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12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해상교량은 해수면 30m 높이에 주탑 2개(높이 105m)와 교각 19개가 설치된다. 현재 공정률은 93.5%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량 건설에는 2082억 원이 투입, 총 4개 차로 중 3개 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1개 차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해저터널은 상·하행선 각각 2개 차로로 분리된 터널로, 600m마다 상하행선을 오갈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마련돼 있다. 터널 굴착은 북쪽인 원산도와 남쪽인 신항동 양방향에서 굴착, 중간 지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됐다.

상행선은 지난 2월 20일 오차 없이 관통에 성공했고, 하행선은 지난 10일 관통됨으로서 충남도와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대내외에 해저터널의 모습을



안면도와 원산도를 잇는 해상교량



보령해저터널 공사현장 입구

공개한 것.

국도 77호선은 그간 파주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휘감듯 건설됐으나,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 대천항 사이에서 끊어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상황.

이에 서울 경기권 관광객이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물론, 충남 서남부권 도민이 서울 경기권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도 서산 AB지구를 빙 둘러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해저를 누비는 이번 도로 연결 사업은 이런 불편을 한 번에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서

해안 교통축의 획기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계 5번째·국내 최장 터널 '안전 확보'는 최고의 관건 해상관광 랜드마크 '기대'

보령해저터널은 일본 도쿄 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km)·에이커선더(7.8km)·오슬로피오르(7.2km)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터널로 건설됐다.

국내에서는 기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 북항터널(5.4km)보다도 1.5km 더 길다.

이 때문에 도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터널 내 가장 낮은 지점은 해수면으로부터 80m 아래, 해저면에서는 55m 아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화학 발파 등 대부분의 공정이 해수면 아래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바닷물 유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며 작업이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진에서도 터널의 안전만큼은 자신한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남쪽인 신항동에는 홍보관과 공원을 조성하고 터널 입구는 고래 입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기로 했다.

터널은 LED 조명으로 운전자가 바닷속을 주행하는 느낌을 연출할 계획이다.

도는 해저터널의 완공으로 태안의 안면도 일대의 관광자원과 머드축제로 널리 알려진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이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상교량, 올 추석 임시 개통 양 지사, "안전사고 없도록" 교량 명칭 합의 풀어야

도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추석을 맞아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태안 영목항~보령 원산도 간 해상교량을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및 보완을 거쳐 연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한창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보령~태안도로 1공구 해저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전날 관통된 해저터널을 살펴본 후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양 지사는 특히 대천해수욕장 부근의 입구부터 원산도 출구까지를 차량으로 직접 이동한 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활용한 해양레저 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 모색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로가 개통되면 보령~태안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돼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도로 개통에 맞춰 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내 최장·세계 5위 해저터널과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해상교량을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모두의 안전"이라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목항~원산도 간 해상교량은 완전 개통에 앞서 두 지자체 간 명칭 합의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와 보령시가 주장하는 원산안면대교, 지명이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명칭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국도 77호선 연결의 의미가 명칭 갈등 속에 퇴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 충남 핵심 산업 그린바이오, 2040년 선도 산업될까?

## 충남의 미래

### ③미래 먹거리에 대한 상상

2040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인도(India)로 바뀌었을 무렵, 충남은 핵심 산업으로 그린바이오, 개인정보 삭제산업, 해양레저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대 충남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 받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2040년에는 마

침내 충남을 대표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꽃을 피웠을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 충남의 미래 먹거리는 그린바이오산업이 될 전망이다. 충남은 그린바이오투자를 주력 산업으로 전략화, 차별화했다.

충남이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주목한 것은 풍부한 농업·축산·산림·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충남은 개인정보 삭제산업의 선도지역이다.

충남은 2025년 즈음부터 '개인정보

삭제산업'을 주요산업으로 성장시킨다.

충남이 개인정보 삭제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역기업체와 유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관련 산업지구 조성에 기반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 첨단산업

이 발달한 충남의 개인정보 삭제 산업은 충남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충남은 2020년부터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 해양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 해양레저의 특징은 바다와 산, 육지와 섬을 연결하여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리아스식 해안구조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도 가능하다.

충남은 2040년대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 동력은 충남도가 만들 '충남비즈니스 혁신아카데미' 때문이다.

미래에 구성될 충남혁신아카데미는 충남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실무적 과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맡는다.

충남 지역경쟁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자립섬인 홍성 죽도를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육도·죽도 찾아 도서민과 소통의 장 마련

육도, 환경개선·관광자원 개발  
죽도, 조업구역 확대 등 지원 등  
도서지역민 소외 없도록 '온 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3일 보령 육도와 홍성 죽도를 연이어 방문, 민생현장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도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 지사와 보령시장, 홍성군수,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방문은 육도에서 주민과의 대화 후 죽도로 이동, 죽

도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죽도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먼저 육도에서는 주민 30여 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쓰레기·석탄야적장 악취 등 환경 개선방안 ▲둘레길·출렁다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지사는 "육도는 육지에서 10분 거리(3km)로 매우 가깝지만 행정적 여건이나 교통수단, 생활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고, 화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어장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는 9월 시작하는 효자2리 마을공동 낚시어선 건조 사업을 비롯해 육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아갈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국내 최초로 녹색에너지 자립 체계를 구축한 죽도로 이동,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사업장을 방문해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및 발전소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죽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대하잡이 조업구역 확대 ▲안전시설 보강 및 캠핑장 보수 등 죽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양 지사는 "홍성군과 함께 추진해 온 죽도 가꾸기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해저 상수도 관로 설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논산, 농약안전성 분석사업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3일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평가는 전국 837개 포괄보조 단위사업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58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의 농촌지도기

반조성 사업 중 논산시에서 추진한 농약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이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분야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농약 규제강화(PLS) 확대 시행 사전 대응 방안인 농약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은 ▲농약 안전성 검사 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검사 수행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현장 방문 지도 수행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농업기술원 041-635-6135

## 자원봉사연수원 충남에

능동적 봉사자 양성 '기반' 위해  
건립 타당성·법적근거 마련 필요

충남도가 국내 자원봉사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할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 전국 공론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안군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은승 남서울대 교수가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필요성과 준비과제'를 주제로 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연수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 역사 기록물 수집·보존,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소영 문화체육부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인권보호, 국제협력 등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은 세밀화·전문화되고 있다"며 "국내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041-635-2982

## 도시재생뉴딜, 국비 20억 추가 확보

상반기 176억 이어 하반기도  
총 320억 확보, 사업 탄력 기대  
9월 말까지 3곳 추가 선정

충남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조기집행

우수 사·도로 선정, 20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당초 광역 선정분으로 배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30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을 확보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광역 선정분 4곳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 충남도는 상반기 1곳(예산군 주교지구)을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까지 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활성화계

획을 접수받아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평가를 통해 9월 말 도시재생특위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 중인 천안·공주·보령·아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앙공모에는 공주시가 광역공모에는 예산군이 각각 선정돼 국비 176억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 공공저작물 콘텐츠 공모 30일까지 활용·체험 사례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각 분야별 공공저작물 활용 및 체험 사례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 이벤트는 도에서 제작한 사진·동영상·음악 등 각종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 생산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례

는 블로그 게시물·강의 발표 자료·바탕화면용 그림·동영상 등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에서 응모 신청서와 사례설명서 등을 내려 받기 한 뒤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 5명,佳作 10명 등 총 15명을 선정해 다음달 8일 영화 이용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 간추린 도정



#### 안전체험관 여름방학 이벤트

충남안전체험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안전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물놀이 안전체험 ▲생활안전 인형극 ▲소화기 사용방법 홍보 인쇄 풍선 나눔 ▲안전다짐 바람개비 만들기 ▲선물박스 이벤트 등이다. 특히 물놀이 안전체험은 체험관 광장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 가족과 함께 연령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울 수 있다.

생활안전 인형극은 행사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진행되며, 다양한 안전 기념품도 마련해 체험객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행사 일정은 충청남도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safe.cn119.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소방학교 안전체험관 041-559-9706

#### 여름철 농업시설물 화재예방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6~17일 예산·서천군 일원에서 시설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배선 상태 점검을 통한 전선 탈락 및 손상 여부 ▲멀티탭·콘센트 등 먼지 쌓임 및 파손 여부 ▲차단기 설치 및 동작 여부와 접속부 탄 흔적 ▲배전함 접속부 및 분전반 먼지 제거 등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노후화된 전기 배선과 자가 설치한 배선,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으로 발생하는 전기 화재에 대해서는 배선 교체, 누전차단기 설치 등 조치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167

####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개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미래 청년농업인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고자, 지난 17~18일 2019년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1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첫날인 17일에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창농정책, 창업 절차 및 사업계획서 수립방법, 나의 농장 분석 및 아이디어 구상,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강의 및 실습, 18일에는 '나만의 사업계획서 보완 및 코칭' 강의를 듣고, 기획한 사업계획서를 직접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각자 농장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획력을 다지고, 현재 상황에 맞는 농업 경영 전략을 세우는 등 실무 위주의 전문적

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152

#### 생활밀착시설 수질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내포신도시내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충남도서관 수경시설, 도청 분수, 흥예공원 자미원 분수 및 바다분수 등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형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많아지면서 레지오넬라균 발생 요소도 증가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연간 2~4회 냉각탑·저수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염소처리, 고온살균, 자외선 조사, 오존 처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수질 검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31



#### 하나은행 양파 12톤 구매

충남도는 지난 18일 도내에서 생산된 양파 12톤을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에 전달했다. KEB하나은행이 최근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양파 12톤(100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양파를 구매한 하나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2524



# '미세먼지 6대 대책' 지원 당부

양 지사, 반 위원장에 "적극 요청"  
미세먼지 비상저감 '의무화'  
국가미세먼지센터 '충남 유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사진 왼쪽)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가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 지원 등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2일 서울에 위치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만나 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산하 기구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 부과 ▲플래이스택 폐가스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사항으로 내놴다.

현재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 대상을 배출시설로 규정, 도내 대기1종 사업장 126곳 중 29개 사업장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지사는 대기 1종 또는 TMS 부착 사업장 등 민간 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1회 위반 당 200만 원 씩 동일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플레이스택과 관련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폐가스 재이용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와 폐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양 지사는 도의 미세먼지 대책 중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충남도 지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유치 등 3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국외 미세먼지 자료 수집 최적지이고, 현재 건립 중인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도가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9

## 충청유교 발전 방안 모색

4차 산업시대 유교 역할 찾고  
충청유교문화원 명칭 변경 논의

충남도가 충청유교문화원 착공을 기념해 충청유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지난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기념 유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유학의 양대학과인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나대용 성균관대 교수와 김경호 전남대 교수가 각각 발표해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알아봤다. 또 '충청유교문화원의 조성'과 활용

방안', '현대사회에서 충청유교문화원의 역할과 전망' 등의 발표를 통해 충청유교문화원의 활용·발전 방향도 모색했다.

특히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단장은 충청유교문화원 개발사업과 문화원 건립 준비과정을 소개하고, 이항배 충남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유교 문화의 재정립, 충청유교문화원의 선구적인 역할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성기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은 충청유교문화원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려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유산과 041-635-3917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기념 유교 전문가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속소재산업 플랫폼 구축 '본궤도'

올해부터 4년 간 190억 원 투입  
"산업의 뿌리 탄탄히 키운다"

충남도가 '산업의 뿌리'로 불리는 금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190억 원을 투입,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조정밀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금속소재는 각종 산업의 핵심 기반소재로, 금속소재산업은 철강·비철금속·분말금속·희소금속 등 원재료를 정련·주조·성형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조정밀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산업

부 지역 거점 기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 중이다. 목표는 ▲금속소재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20개) ▲지역 첨단 금속소재 산업 지원 핵심 거점 역할(장비 이용 4500건 이상)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정밀 금형·소성가공기술 첨단화 및 융·복합화 기술 개발 등으로 잡았다.

주요 사업은 ▲지역 첨단금속소재산업 지원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구축 ▲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초정밀 금속 가공 분야 장비 구축·운영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수요 기반형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달부터 거점센터 부지매입과 건축 실시설계, 시험 분석 및 평가 장비 4종 구축, 제조공정 고도화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7590㎡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310㎡ 규모로 2021년 문을 여는 거점센터는 지역 금속소재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초정밀 가공·성형·시제품 제작·시험·분석·평가 장비를 갖추고, 연구 개발 및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도는 거점센터 신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22억 원, 부가가치 유발 138억 원, 취업 101명 등으로 예상된다.

●산업육성과 041-635-2923

## 도, 공공건축가제도를 본격 시행

2년간 64명 위촉·운영 시작  
건축사업 기획·디자인 등 자문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는 2년간 공공건축, 도시재생뉴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어촌뉴딜, 일반 농산어촌사업, 공간환경조성사업 등 도내 주요 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디자인 자문을 통해 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 분야 간 융합과 균형을 조율한다.

또 에이치아이비(HIB, human building interaction) 시스템과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라는 도정 방침을 시각화하고, 다수의 지역 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공공건축가로 위촉한 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 ▲수석공공건축가 장순각 한양대 교수,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중진건축가 31명 ▲신진건축가 30명 등 총 64명이다.

도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문화 품격 창출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전국 최초로 인권·여성·장애인·민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자문단으로 별도 구성해 각종 사업에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과 041-635-4666

## 화학물질 안전...더 촘촘하게

화학사고 예방·대응 총력하고  
현장 매뉴얼·관리 로드맵 설계

충남도는 지난 12일 충남도서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연구 용역은 '충청남도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 및 전망 파악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화학사고 위

험도 평가 등을 통해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대책과 대응계획 등을 마련하고, 현장조치 매뉴얼 현실화·효율화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사진)는 "화학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계획 수립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과 041-635-4446

## '갇슈'와 '갇유'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17)

국어의 자양분은 지역말이다. 언어는 시대에 맞춰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수많은 말들이 생겨난다. 이때 국어가 부족하면 외국어를 수용하여 채워 가야 한다. 21세기는 국제 사회다. 이에 걸맞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외국어들이 이 땅에 범람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겪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우리 국어는 감당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달려왔다. 일제의 침탈로 일본어가 관을 치고, 해방 이후에는 영어가 퍼져갔다. 이런 외국어 침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국어순화 운동에 동참했다. 그런 결과, 한국어는 세계 속의 언어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지역말이 있었다. 국어학자들은 표준어를 사정하고, 서울에 없는 말들은 지역말을 조사하여 표준어로 삼았다.

그리하여 표준어는 그 절반이 지역말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풍부한 지역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고, 어느 언어에도 뒤지지 않는 풍부한 국어를 일궈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말은 한때 금기시되었다. 1960~1970년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였다. 제3공화국은 근대화란 이름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미신 타파란 미명 아래 미풍양속과 문화유산을 무너뜨리고, 획일화된 표준어 교육 아래 지역말은 사투리란 이름으로 격하되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지역말이 사라지고, 지역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간다.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분권적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투리란 말도 점차 사라지고, 텔레비전과 매체들은 앞 다투어 지역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표준어 중심으로 글을 써오다 보니 지역말 표기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특히 지역신문들을 보면 잘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갇슈'를 '갇

슈'로 잘못 쓰는 경우다.

### ■표준어

'가+았+어요→갇어요'  
'하+았+어요→하였어/했어요'  
'먹+았+어요→먹었어요'

### ■충청말

'가+았+어유→갇어유'갇유'  
'하+았+어유→  
허었어유/했어유'했어유'  
'먹+았+어유→먹었어유'먹었어유'

'갇슈'는 '갇어유'에 대응하는 충청말이다. '슈'는 충청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로 표준어 '어유'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슈'는 '어유'의 준말이다. 충청 사람들은 특하면 말을 줄여 쓴다.

위의 예는 표준어법에 맞춘 충청어법 공식이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갇슈, 했슈, 먹었슈, 들었슈' 따위로 쓰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 “지역 문화예술인들 설 수 있는 무대 만들고 파”

## 문화사-나래핀문화예술단

이기정 단장 중심 성악무대 선풍 여성합창단, 앙상블, 팝페라 등 아마추어·프로 모여 다채로운 공연

나래핀문화예술단(단장 이기정)은 중창단, 합창단, 팝페라 듀오 등 충남에서 활동하는 프로·아마추어 성악인들의 연합체다. 당진시립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정 단장을 중심으로 나래핀싱어즈, 나래핀 여성합창단, 나래핀성악연구회, 팝페라 듀오 나래핀, 나래핀성악앙상블, 나래핀 성악교실 등 6개 팀이 소속돼 있다.

지금은 여섯 개의 팀이 각자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시작은 다소 소박했다. 이기정 단장은 “지휘를 맡고 있던 교회에서 합창단 지도를 부탁하게 되면서 교인



나래핀문화예술단이 국악과 어우러진 합창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몇몇과 함께 여성중창단인 나래핀싱어즈를 구성한 것이 2010년 이었다”며 “이후로 여성합창단, 중창단, 전문 성악가 모임 등 다양한 그룹을 구성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나래핀싱어즈는 천안 반석교회 교인 7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성가를 주로 연주한다. 오랜 활동경력 만큼이나 실력도 우수한데, 2016년 제5회 유관순음악제에서 전국 성악경연대회 중창 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래핀싱어즈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창단한 ‘나래핀여성합창단’은 천안, 아산의 아마추어 여성 성악가 20명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이다. 2014년에 창단한 나래핀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무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심시일반 모이는 회화로 운영되는데, 천안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 등의 공연활동 지원도 꾸준히 받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다.

나래핀성악연구회는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지휘자들의 연주 모임이다. 2014년 창단한 이래 2016년부터 2년 연속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소리어울림’이라는 타이틀로 동서양 음악이 하나 되는 무대를 연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기정 단장과 여성 성악가가 한 팀을 이룬 팝페라듀오나 래핀가 각종 행사에서 팝페라곡을 선보이고 있고, 이기정 단장을 중심

으로 결성된 천안 지역 아마추어 성악 동호회 나래핀성악교실도 꾸준히 활동 중이다.

정기연주회, 지역 행사 무대 등 1년에 10여 차례 이상의 행사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래핀문화예술단의 중심에는 이기정 단장이 있다. 이 단장이 성악을 주제로 다채로운 팀을 구성해 연주자들을 모으는데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래핀문화예술단은 올 하반기에 기획연주회 ‘노래하는 지휘자 7테너’, 여성합창단 6회 정기연주회, 나래핀싱어즈 2회 정기연주회, 성악교실 단독 첫 연주회, 성악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등 굵직한 공연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이기정 단장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나래핀문화예술단을 비롯한 지역 예술가들의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동 kh1226@korea.kr

## 문화행사

### 고암아카데미

■일시 : 7월 19일~8월 16일  
■여름 방학을 맞아 이응노의집에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고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은 이응노의집 전시와 연계된 감상교육과 창작활동, 그리고 전시 콘텐츠 관련 미술특강과 미술관 진로탐색까지 4가지 영역의 예술통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장소 : 흥성 이응노의집  
■문의 : 041-630-9220

### 노재석 조각 전시회

■일시 : ~ 7월 31일

■작가는 가장 순수한 재료인 돌을 주재료로 활용해 자연과 문명의 상징적 표현을 드로잉의 선처럼 새기고 깎아낸다. 자연에서 찾아낸 돌덩어리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내적인 생명에 대한 신비와 자연의 생성-소멸이 들어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발표되는 작가의 작품에선 돌의 원 형태(mass)를 살려 대지를 표현한 곡선의 유연함을 볼 수 있다.

■장소 :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 양방언, 초원의 바람

■일시 : 7월 31일  
■다큐멘터리 <아리랑 로드> <차마고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역임한 양방언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베이스, 기타, 퍼커션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함께 들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민속악기 ‘얼후’가 편성되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그의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1644-9289

### 논산 토마토편제티비벌

■일시 : 7월 19일~8월 18일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스페인 토마토축제와 물총축제를 콜라보한 페스티벌. 토마토 던지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토마토를 주제로 한 요리 만들기, 토마토 샴페인 만들기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페스티벌이다.

■장소 : 논산시 상월 면 상월로 522  
■문의 : 041-833-7171

### 세계조롱박축제 2019

■일시 : 7월 26일~8월 18일  
■초록빛으로 물든 작은 산골 알프스 마을에 세계 조롱박이 다 모인다. 24km에 달하는 긴 터널에 세계 각국의 형형색색 희귀한 박들이 열리고, 박 공예품이 전시된다. 또한 소박하고 시골내음 가득한 이색적인 전통 박 음식을 먹으며 칠갑산 산골짜기 계곡 따라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장소 : 청양군 정산면 알프스마을  
■문의 : 041-9942-0797

### 논산시민공원 버스킹

■일시 : ~9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주말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논산 시민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쇼, 밴드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선보인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끝을 논산에서 장식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소 : 논산 시민공원

### 조각 전시회 ‘꿈꾸는 아이들’

■일시 : 8월 1일~31일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곳이 간절할 때, 시원한 미술관에서 즐기는 전시바캉스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보령시 소재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꿈꾸는 아이들’ 노대식 조각展 을 기획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조각작품들을 만나보자.

■장소 :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 취중 일필휘지로 빛은 인생 희노애락

### 변상섭의 그림읽기

#### 이중상 작 몽유취원도

술병을 든 원숭이가 파안대소다. 한마디로 취기를 빌려 부리는 호기가 가관이다. 당당함이 지나쳐 상대 방에게 ‘담털테면 담벼봐’ 하는 모양새다. 일랑(一浪) 이중상 화백(82)의 ‘몽유취원도(1975)’ 속의 원숭이가 딱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랑하면 5000원권과 5만 원권에 새겨진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모자를 그린 화폐영정 작가를 떠올린다. ‘돈의 화가’란 별칭도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독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그린 독도 그림, 동유벽화 등도 일랑 예술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젊은 시절 일랑은 두주불사에 옹기 재떨이를 쓸 정도로 골초였다고 한다. 줄 담배에 술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하던 시절에 탄생된 작품이 ‘몽유취원도’다.

실제 일랑은 어느날 저녁 취생몽



사(醉生夢死) 상태에서 ‘몽유취원도’를 그렸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원숭이를 그린 그림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자신이 그린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술의 힘을 빌려 일필휘지로 취필(醉筆)을 휘두른 것이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미술을 전공한 아내가 지난 밤에 남편이 잠든 사이 그린 게 아

닌가 하고 물어봤을 정도였다.

그런데 손에 먹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꿇긴 필름을 짜 맞추다보니 비로소 자신이 그린 것을 알았다고 한다. 피우고 난 담배꽂이를 붓 삼아 그린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신이 봐도 걸작인 술 취한 원숭이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어딘가 부족해 찢어버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일랑은 그때 “그림은 그리는데 아니라 그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한다.

화제는 안건의 ‘몽유취원도’에서 빌려왔지만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사뭇 다르다. 원숭이가 술병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는 듯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어찌지 못해 찢쩍매다가 술의 힘을 빌려 극복하려는 작가의 절절함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40여년 전 청년화가 일랑의 고뇌가 묻어 있는 자화상이나 다름이 없는 걸작이다.

/변상섭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 손톱위에서 곱게 피우는 봉선화꽃

### 국미나의 꽃이야기

연필에 침을 묻혀 쓰신 흔적이 뚜렷한 작은 글씨에 어머니의 한이 서려있었다.

왜놈들 식민지 시절에 배움이 없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는 사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무척 부러워 헛간에 숨어서 지켜보며 꿈을 그리기도 하셨단다. 식민지 백성들은 공부가 사치란다. 어머니께서 슬픔을 말씀하신다.

어제 너머로 공부한 어머니의 글은 우리 집안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신다. 집안에 즐거움 가득한 날에도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의 의미가 식민지 백성의 어머니의 한을 담았던 노래였다.

울밑에 선 봉선화/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안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술술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보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네 형제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였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여름밤이면 모기불과 평상위에서 어머니께서 봉선화꽃과 백반을 넣고 찢어 손톱에 빨갱게 물들여 주셨었는데 마당에서 한번 손톱위에서 또 한번 곱게 피는 꽃 어김없이 여름 봉선화 꽃이 어린 시절 추억의 터널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

봉선화. 꽃의 생김새가 마치 봉(鳳)을 닮아 봉선화라고 부른다.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식민지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꽃이다.



# 당진·평택항이 충남땅이라는 결정적 증거

## 내포칼럼



이 인 화  
내포민속문화연구소장

양승조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지난 5월 27일 제8회 충청남도지방정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해안경계는 지방자치법 등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역사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간에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점으로 지도상의 도계가 도경계이기 때문이다. 1861년 고지도, 1896년 한말 1:5만 지형도, 그리고 1919년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에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한 아산만 해상 도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둘째, 그런 도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로활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 1861년 이전부터 평택주민과 당진주민들이 암묵적으로 그 도계를 인정해 해상 바위, 펄을 사용하였다. 그러기에 그 위치와 범위를 GPS 등으로 찍어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런 도계분쟁과 관련한 행정행위도 살펴봐야 한다. 그 사례가 1913년 충남도장관이 조선총독부에 보낸 서신이 있다.

잘못된 도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인데 그 바로 잡힌 자료가 발굴되었다. 「대전2년(1913) 8월 23일/ 충청남도장관(知事)/조선총독 전/地圖의 更正方(方法)의 義(受)에 대하여 上申하나다.」 내용으로 1913년 충남도장관(도지사)이 잘못된 을호 경계를 1896년도 경계 지도인 갑호와 같이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다.

「1896年(明治29)에 만들어진 陸地測量部의 圖面과 같으며 해당 모래섬의 北쪽 鬮길로써 境界로 하는 것은 당연한 뜻이라고 서로 認識하고 있나이다. ... 將來 漁撈의 發達에 따라 右境界線의 劃定如何는 반드시 利害의

問題를 惹起할 것이라고 相認하고 있나이다. 此際에 地圖의 更正(바로잡다)을 行하여 두는 것이 他日에 있을 紛糾를 避할 수 있는 點에 있어서 必要한 것임을 相認하는바이나이다. 右 更正 方案에 바른길을 교섭하시어 成事시켜 주시옵기 바라옵고 肅心하나다.」(서봉식 번역)

따라서 충남도장관이 보낸 서신의 도계를 변경한 행정행위의 결정적 사례 자료라 생각된다. 1896년 도계 표시 지도, 1910년 도계 잘못 표기된 지도, 1919년 바로 잡힌 지도의 발견은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넷째, 아산만의 지형은 충남땅으로부터 육지부 연장선이 행담도에 이르러 서해대교 지지 지반인 주탑을 넘어 평택근처에까지 이르러 대륙붕단이 끝나고 있다.

한 국가의 땅도 대륙붕을 인정하여 영토 근거를 잡고 있듯 충남도 육지부에 근거한 충남해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그간의 지도에 잘 나타나 있듯 가항수로를 따라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충남도 육지부의 대륙붕으로서 썰물 때 나타나는 해상 바위와 펄들. 그 해상의 사건 사고들이 바로 충남주민들의 역사다.

다섯째, 또한 미확정 경계면을 확인할 해상 수심 측정 지도 발견도 중요하다. 일제가 우리나라 해안을 침범하기 위해 곳곳에 바다 수심을 측정해 기록해 두었는데 『아산강약도』가 그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가항수로와 연계해 도경계를 확정하면 좋겠다.

하반기 있을 대법원 현장 검증과 재판부의 2차 변론에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준비를 잘하여 좋은 판결을 받으면 좋겠다.

- 1896년 충남·경기 도계 표시지도
- 1910년 도계 잘못 표기돼
- 1919년 바로 잡힌 지도 발견으로
-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임을
-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



1919년 발행한 지형도. 이 지도에는 아산만(안성천) 관련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변경(반영)되어 표기돼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인의 이름

##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강연장에 나가거나 독자들을 만날 때 매우 민망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나의 시가 너무 아름답다는 말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쁜 말로 시를 썼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이다. 그런 때는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면서 대답을 한다. 나아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엔 더는 할 말이 없어 전전긍긍하기 마련이다.

나의 이름은 태주. 한자로 써서 클 태(泰) 자에 기둥 주(柱) 자. ‘주’ 자는 항렬이고 ‘태’ 자는 아버지의 소망이 들어있는 글자이다. 그것이 매우 불편했다. 나더러 집안의 큰 기둥이 되어달라는 아버지의 주문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짐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선생을 하던 시절이다. 비 오는 날 오후 시간 교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던 날이었다. 교문 쪽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좀 태워주세요.” 이걸 무슨 소리인가? 아이들이 나를 놀리느라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부르는 것이었다.

그렇구나, 내 이름이 나태주니까 ‘나 좀 태워주세요’ 로구나. 그래서 나는 강연장에 나가면 그 말을 빼놓지 않고 한다. 나는 차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나 좀 태워주세요’라서 자동차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즐겨 웃는다.

선배 시인들의 이름을 두고 생각해 본다. 시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시인의 이름에서 그 시인 나름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청록과 시인을 예를 들어 볼 때, ‘박두진’ 하면 송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박목월’ 하면 두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조지훈’ 하면 오래 묵은 한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걸까? 그것이 평생의 나의 과제였고 걱정이었다. 그런데 요즘 독자들은 말한다. 나태주란 이름이 시인의 이름으로서 참 적절하다고. 이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술이란 말인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름 자에 받침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신기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심히 두려운 노릇이다.

# 청년들이 넘치는 고향을 기대하며

## 생생현장리포트



김 정 기  
서천신문 편집국장

모두가 떠났다. 삶과 배움을 위해 모두가 그렇게 떠났고 충남의 최남단 서천군은 이촌향도의 현실 속에서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노인들의 도시로 통계수치 최상위권에 항상 그 이름을 올려왔다.

그랬던 이곳에 젊음이란 이름의 화사한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다. 여섯 명의 도시 청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한산면을 찾더니 ‘삼기술학교’를 열어 마을 주민들의 삶 기술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목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30대로 구성된 이들은 자신만이 가진 삶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전통과 장인의 혼이 깃든 ‘한산행’을 선택했다.

이들은 한달 살기, 육개월 살기 등의 구체적 거주 목표를 비롯해 프로그래머가 운영하는 PC방, 사진관, 5평 클럽파티장, 요가교실, 유튜브 방송, 문화대장간, 연극단 운영 등과 자체적인 마을축제까지 개최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무엇보다 한산면 주민들과 함께 생

활하며 소극주 빚기, 모시 삼기, 대장간 등의 생활 기술을 터득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만큼은 대견해 보인다.

아울러 향후 한산에서 거주하며 얻은 삶의 기술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돌며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갖고 각 기수별 30명씩 300명의 도시 젊은이들을 한산으로 이주시킨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도시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던 청년들이 전문문화와 생태자원이 풍부한 한산면에 귀촌하여 경험 공유를 통한 배움과 협업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인 삼기술학교를 만들기 위한 꿈을 가지고 모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라’ 했던 사회적 명령을 거부한 이들 청년들은 한산면 전체를 무대로 자신들이 쌓은 전문적 기술을 삼기술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민들의 삶 기술을 배우고 소통하고 있다.

또 소득으로 연결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사회는 이들의 정착을 도울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안내해야 한다.

도시로만 집중되는 현실속에서 역발상적으로 시도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기대와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내 최고의 고령화지역인 서천이 청년들의 도시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자기 성장을 위한 주도적 배움의 공간

## 충남유교이야기⑩

### 서원의 역사적 의미

유교의 종주국은 중국이고, 서원의 효시도 중국이다. 중국에도 중요한 서원이 많이 남아 있다. 4대 서원으로 꼽히는 백록동서원, 송양서원, 악록서원, 응천서원은 모두 각각 주희(朱熹), 이정(二程) 형제와 주돈이(周敦頤), 장식(張栻), 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 등의 걸출한 인물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서원의 규모도 훨씬 크고 역사도 깊다. 그런데 왜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서원에 매료되었는가?

한국의 서원은 웅장하지 않다. 나지막하고 아담한 건물 몇 채가 들어서 있을 뿐이다. 다른 한국의 전통 건축이 그러하듯, 서원 역시 배경과의 어울림을 중시한 결과이다. 화려하지 않고 담담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학의 정신을 건축에 잘 담아내고 있다.

한국 서원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교육적 의미에 있다. 서원이 설립될 무렵 조선은 이미 성균관·사부학당·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돈암서원의 ‘응도당(凝道堂)’. 김장생의 학문을 숭모한 그의 제자들이 수기치인의 이상을 품고 위기지학에 힘쓰던 곳이다.

향교 등과 같은 국립 교육기관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 조선 말 전국에 335곳의 향교가 있었다고 하니, 교육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 서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등장해 성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진정한 교육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당시의 국립학교들은 유학의 ‘수기치인’의 이상을 실현해 내지 못했다. 자기 수양이나 실력향상보다 과거시험 합격의 우선시되었던 탓이다.

서원은 이 폐단을 벗어나고자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관료가 아닌 ‘선비’를 길러 내려고 했고, 위인지학(爲人之學, 남의 인정을 받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공부)이 아닌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 성장을 위한 주도적 배움)의 교육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우리의 서원이다.

이는 여전히 과거공부에 큰 비중을 두었던 중국의 서원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것이다.

/이치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짚풀로 엮어낸 인생 2막 '활짝'

홍성 짚풀공예가 김준환 씨  
공무원 퇴직 후 본격 활동

[홍성]시골길 어느 구석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손주들에게 도란도란 찰진 옛이야기를 풀어줄 것만 같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짚풀공예작가 김준환 선생(69). 소박한 그의 외모처럼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의 집 근처 비닐하우스 역시 소박하기 그지 없었다.



짚풀공예가 김준환 씨가 짚풀로 엮은 이순신 갑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대단한 작품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 김 선생이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는 작품들을 보는 순간 "뽕짚으로 어떻게 이런 작품이 가능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처음 김 선생이 만든 배낭, 핸드백, 크기별로 다양한 그릇 등을 봤을 땐 짚으로 만든 밀짚모자나 짚신을 엮는 솜씨가 다소 능수능란 정도면 가능하겠거니 여긴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다 빼곡이 정리 안 된 채 쌓여 있는 작품들 사이에 짚으로 만든 돼지와 황소, 거북이 모양의 동물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건 솜씨가 아니라 예술이라 불러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르렀다.

하지만 이렇게 김 선생의 작품 세계에 낫 놓고 푹 빠져있을 즈음, 김 선생은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제 눈앞에 펼쳐보였다. 그것은 바로 저고리와 치마다. 짚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옷조차 메인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 집에서 어마무시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돼지, 소, 거북이 같은 동물을 만드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립니다. 이를 정도... 지금 집에서 이순신 장군 갑옷을 만들고 있는데, 매년 아산에서 열리는 은해나무축제 때 런웨이 공연에 출품할 작품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오는 10월 아산 런웨이에 출품할 이순신장군 갑옷을 입고 있는 김준환 선생. 김 선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갔지만 농사를 지으라는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서당을 다녔다고 한다.

"전반기 수업료로 통보리 다섯말 후 반기는 벼 다섯말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농사일 하라는 바람에 그나마 다니던 서당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데, 저녁에 뭐하겠어요. 사랑방에 어르신들이 모여 곱방대 광방 피워대는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 짚 엮는 거 보면서 손바닥 피나도록 짚을 엮었죠. 어르신들한테 짚풀 엮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대목장이기도 하다. 목수로 현장을 쫓아다니다보니 홍성 밖에서 주로 활동하다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다시 홍성으로 돌아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임 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짚을 손에 놓지 않았고 틈틈이 작품을 만들며 충남도 공예전에 출품해 특선에 오르기도 했다. 정년퇴임 후 시간이 많아진 그는 본격적으로 짚풀공예에 뛰어들었고, 작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통일명인미술대전'에 출품해 정식으로 작가 반열에 올랐다.

"작품활동은 매주 일요일 아산에 공방에 가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에 공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공방을 만들 겁니다. 처음엔 홍성읍쪽을 봤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 저희 집 근처 비닐하우스 한쪽에 공방을 만들고, 여기에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기원/홍주신문  
hjn@hjn24.com



판교 홍림리 해바라기 마을을 견학한 아화리 주민들

## 행복이 '해바라기'처럼 뭉게뭉게

### 주민자치1번지

#### 논산시 채운면 아화리

#### 행복마을 콘테스트 우수마을 해바라기 축제 성공리 개최

논산시 채운면, 채운평야라고 부를 만큼 완전한 평야지역인 면의 중심에 아화리가 있다. 아화리는 들꽃이 많이 피어 아름다운 밤을 이루었다고 하여 '야화'로 불리는 꽃동네 마을이다. 이중 야화 1리는 50여 가구, 주민 108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여느 농촌마을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를 겪어 왔다.

점차 침체된 마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주민들은 2016년부터 마을축제인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화리 마을회는 2017년에 충남도가 실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아화리는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하여 장승과 솟대를 제작해 지역 불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7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돌고개 솟대마을 장승 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정기석 아화리 이장은 "우리 전통 문화를 되새기고 마을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장

승세우기를 시작했다"며 "장승을 세우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화리 주민들은 아름다운 마을 경관 만들기에 앞장섰다. 먼저 마을회관 앞 빈집을 활용해 아화리 갤러리를 만들었다. 잔디와 함께 계절에 맞는 꽃을 가꾸었으며 시를 써 둔 향아리를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었다. 아화리 갤러리와 정원은 아화리를 찾은 외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됐다.

스스로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며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게 됐다. 김수병 아화리 노인회장은 "오즘들어선 다른 동네 주민들과 타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주 마을 자랑이 하고 싶어진다"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 손으로 직접 가꾸고 지킨다는 게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야화 1리 주민들은 요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하다.

정기석 이장은 "앞으로 더 많은 솟대와 장승을 세우고 매년 해바라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해바라기처럼 마을에 즐거움과 행복이 꾸준히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성과와 방향 사례집 /김혜동 khdf1226@korea.kr

## "선(善)한 배우 되고 싶어요"

서산 출신 문진희 씨  
미스그랜드 코리아 선 영예



미스그랜드 코리아 충청 진(眞) 문진희 씨(25·사진)가 본선대회에서 2019 미스그랜드 코리아 선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에서 열린 본선대회

에 진출한 22명이 다재다능한 재능과 매력력을 발산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선의 영광을 안은 문진희 씨는 "기쁘고, 고맙다. 오늘의 영광을 저의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 많은 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배우가 되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며 기뻐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인 문진희 씨는 전공에 어울리게 연기와 뮤지컬이 특기이며 평소 주위에 활력을 준다 하여 "에너지이저"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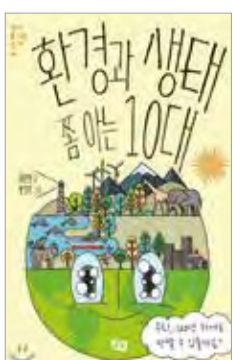
미스그랜드 코리아 선발 대회는 평화와 비폭력을 모토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대표가 참가하는 미스그랜드 인터내셔널 2019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다.

박채연/서해안신문  
pcyehu@daum.net

## 아보카도·바나나의 불편한 진실



### 사서들의 서재



<글/최원형, 그림/방상호, 풀빛>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로 인한 쓰레기 대란으로 한동안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마다 재활용 쓰레기가 켜켜이 쌓였다. 그동안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국내 곳곳에 위치한 쓰레기산과 북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 7배 크기의 쓰레기섬에 관한 기사를 접하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문화를 이어간다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모습은 볼 보듯 뻔하다.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는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행하는 여덟 가지 소비가 이 세상의 구석구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환경·생태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여덟 가지 테마는 다른 곳에서 출발한 듯 보

이지만, 서로 얽히고설켜 다시 소비라는 문제로 모인다.

첫 번째 칩라면은 면발은 튀기는 데 필요한 팜유를 대량 생산하느라 열대우림에서 쫓겨나는 오랑우탄, 대기업의 플랜테이션 농법으로 인해 농민이 샴터를 뺏기고 소작농이 되는 모습과 이어진다. 이는 다음 장의 바나나 문제와도 이어진다. 바나나 역시 플랜테이션 농법으로 재배되는데, 여기에서는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상업적으로 대량 유통에 성공했다가 전염병으로 절멸한 바나나 품종 사례를 들어 다른 작물에도 유사한 일이 닥칠 수 있고 나아가 식량위기도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장은 먹거리를 유행처럼 소비하는 풍조와 함께 아보카도가 등장한다.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느라 아보카도 재배 면적이

극적으로 늘었고,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유통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대량 생산 때문에 오염된 환경은 물론 물 부족을 겪는 현지 노동자까지 그려지며 해결 방법의 하나로 로컬 푸드 운동을 소개한다.

이어서 쉽게 쓰고 버리는 생수병으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행 아이템처럼 쓰고 버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 제품에서 전자폐기물 처리 문제를,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낮은 인건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었다. 이로써 누구도 환경오염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가장 먼저 극심한 피해를 입는 쪽은 늘 약하고 목소리가 없는 존재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 때문에 목숨마저 위협받는 생명들, 겨울마다 열풍을 일으키는 롱패딩의 속을 채우기 위해 산 채로 털을 뽑히는 동물의 목소리를 전하며 동물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

를 한다.

이 책은 개인이 죄책감을 동기 삼아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와 기업이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져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염과 폐기물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국가를 만드는 것,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다. 즉, 시민으로서의 나와 기업, 국가가 서로 책임을 다해야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최현주  
충남도서관 사서

# 무지개와 노을이 아름다운 생태공동체 마을

## 더 행복한 마을

### (19) 공주 예하지마을

신석기 움막서 농촌 기원을  
공주 인절미의 유래와 시작을

마을교육 공동체 힘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꿈꾸”



의당 집터 다지기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

깊은 산골에 위치한 만큼 무지개가 뜨고 노을이 질 때면 그 풍경이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예하지마을에선 사람이 곧 자원이다. 두만리 이장, 농촌체험마을 위원장, 공주시친환경농업연합회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의당 집터다지기 보존회장 등 다양한 직함을 가진 전용주(74) 이장이 마을의 산 증인이고, 마을의 실질적 운영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출 사무장이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하지마을이 생태공동체를 테마로 본격 손님맞이를 시작한 것은 2007년.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공주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마을이 알려지고, 발전을 거듭하며 2012년엔 녹색농촌체험 마을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로, 2012년엔 팜스테이 마을로, 2017년엔 우수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연달아 지정됐다. 그런 과정에 서울이나 대전, 세종의 여러 단체와 MOU를 맺어 지속적인 체험객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작년 한 해 다녀만 손님만 1만 1530명에 이른다. 마을의 인기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전 이장과 김 사무장은 한 입으로 생태 특화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장 체험객이 많은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에요. 서울 14곳, 세종 2곳의 학교와 MOU를 맺어 친환경 농사체험을 해요. 농부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가 봄에는 모내기와 보리피리 체험을 하고 가을엔 수확체험

을 하죠. 여름엔 마을 안에 마련된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이 개장을 해요. 물고기를 잡고 채집하면서 인간과 민물고기의 상생과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체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김 사무장의 자랑이 대단하다. 겨울에 진행되는 유네스코 김장문화체험도 인기라고. 단순히 김장을 해보는 데서 나아가 김장에 담긴 공동체 문화를 알리고 나누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이때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배추며 고춧가루며 양념류들이 판매돼 수익을 얻는 건 답이다. 시작한 지 15년 가까이 된 김장행사는 매년 부녀회원들이 손사래를 칠 정도로 인기가 많아, 마을 수익사업



김학출 사무장(왼쪽)과 전용주 이장

으로도 제몫을 한다고.

이뿐만 아니라 예하지마을엔 전국 어느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신석기 움집 체험이 있다. 주민들이 사전에 이영을 엮고 움집 기초를 만들어 두면 아이들이 와서 이영을 연결해 움집을 만들어 보며 신석기 녹색혁명을 통해 농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듣고 몸소 느껴보는 것, 여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당 집터 다지기 공존하는 현장을 맞출 수 있다.

반면 어른들에게는 인절미의 내력을 알려주는 공주 인절미 체험이 인기다. 조선 인조 임금의 이괄의 난을 피해 공산성 쌍수정으로 피난 온 시절, 우성면에 살던 임씨 부인이 왕을

위해 진상한 떡이라 하여 ‘임+절미’라 하다 인절미로 불리게 됐다고. 김 사무장은 스토리텔링과 체험과 문화의 접목을 통해 농촌 체험마을의 뻘한 체험거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집중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오는 여름방학엔 마을이 더욱 바빠진다. 첫 일주일 동안은 대전의 한 단체와 팜스테이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마을 아이들과 인근 수촌초 학생들을 위한 마을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방학동안 돌봄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뛰어놀며 농촌과 자연을, 문화와 예절을 익히고 배우며 지혜와 삶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 요즘이야 마을교육 공동체란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과거 우리 선조들이 자라고 교육받던 그 문화를 마을에서 되살려낸 것.

전 이장은 “처마 물은 꼭 그 자리로 떨어지지 다른 자리로 안 가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마을이 살기 좋아진다면 해야 하잖아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해 나가는 거죠. 후손들이 들어와 살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기반을 만들어 두는 게 앞으로 목표라면 목표죠.”라며 바람을 전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 홍성 신동마을 할배DJ 탄생 “들어보실래요, 쿨”

어르신으로 구성된 마을미디어  
멋쩍던 표정 사라지고  
살아온 이야기 스킨 ‘활력소’



육지원사업이다.

나훈아의 ‘홍시’ 전주가 시작되면 장곡면 신동마을 이견형 노인회장님(사진)의 멋진 오프닝이 들려온다. 처음에는 멋쩍어 하시더니 이제는 스스로 선곡도 하시고, 대본을 써 드리지

않아도 즉석에서 멘트가 가능하시니 진짜로 할배DJ의 모습이다. 노인회장님 외에도 현재 많은 마을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모내기철 고기 잡던 이야기, 아버지 따라 장에 가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된 신동마을에서 ‘마을라디오’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 주민들 간의 소통,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마을미디어’의 진가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마을미디어’란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미디어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으로 전국의 미디어센터들 중 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김경미/홍주신문  
rlarudal4767@daum.net

## “격려와 진솔한 비판으로 더 행복한 1등 충남 만들자”

애독자마당  
양승조 지사 1주년을 맞아

고용율 전국 2위 달성 등

저출산 등 3대 위기 극복 매진  
도정 힘모아 행복한 충남 진력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았다. 전국 지자체 중 단연 돋보이는 정책수립에 박수로 응원한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6개 부문을 정책적으로 내놓았다.

첫째 두 자녀 출산시 아파트 임대료를 100% 감면과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충남 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 출산시 임대료 50% 감면, 두 자녀 출산시 무료 등 파격을 단행했다.

둘째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이다. 셋째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중인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 건강,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우수기업 715개 사를 유치한다. 1년 동안 국내 707개가 국외 8개사로 고용능력 1만5589명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성과이다.

다섯째 사상 최초 도 예산 7조2646억 원을 돌파, 여섯째 무역수지 전국

1위 533억달러로 수출 920억 달러, 수입 387억 달러이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이 타 시도 중에 단연 앞서가는 행복한 충남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신조 수상이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판단에 불만을 품고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다.

막부내 식 행보는 아직도 일본은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탈을 벗지 못한 전범국가일 뿐이다.

하지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획기적 경제정책을 수립 차근차근 밟아가며 화해와 협력으로 뭉쳐 1등 충남을 향해 매진해가고 있다.

고용율 전국2위, 청년 고용율 전국 1위 달성 등 우리 충남도를 빛나게 하는 뉴스를 보라. 산자수명한 충청남도, 기름진 옥답 바다가 있는 곳, 내포 신도시에 시원한 바람과 향기가 가득하여 양승조(호)가 순항을 할 것으로 믿는다.

다시 주창하거나 도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회에서는 격려 그리고 진솔한 비판과 평가로 발전하는 충청남도를 위해 도정을 펴 나가기를 당부한다.



송병승  
서울시 도봉구

## 천안농협 고주모 합창단 충남 최고

충남여성지도자 합창대회 우승

래연습을 했다.  
심사평에서 곡 선택이 탁월했으며

이현자/천안신문  
icjn@hanmail.net

[천안]천안농협 고향주부모임(사진)이 제4회 여성지도자 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농협충남지역본부와 (사)고향주부모임 충남도지회가 주관한 합창대회에서 도내 여성농업인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농협 고향주부모임은 바람, 하트하트 등 2곡을 불러 우수상을 차지한 것.

천안농협 고향주부모임은 바쁜 영농철에도 저녁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노



단합된 이미지와 깔끔한 드레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머드로 세계인이 하나되다

### 보령머드축제 낭만과 열정 가득 국내외 수만 명 참가열기

[보령]막바지에 접어든 제22회 보령머드축제가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축제는 머드광장 일반존에 대형머드탕 등 12종의 에어바운스와 머드장애물 10종의 머드런, 시민탐광장에서는 머드키즈랜드 등 6종의 에어바운스가 운영되는 체험존 ▲KPOP과 함께하는 야간 공연 ▲거리퍼레이드 및 갯벌 스포츠대회, 오프 퍼레이드, 중앙시장 도시락 페스티벌,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펼쳐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저녁 7시부터 머드광장 인근 머드랜드 특설무대에서 KPOP슈퍼콘서트 '쇼!음악중심'이 열리는데 청하와 NCT DREAM, 러블리즈, SF9, 더보이즈, 박지훈 등 최고의

아이돌 가수과 타이거 JK&bizzy의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28일 저녁 8시부터는 노라조와 정미애, 왓와리, BIG, 씨드아가 폐막식에 함께하고, 불꽃판타지쇼로 대미를 장식하며 내년 축제를 기약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보령머드축제가 세계

인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1년 완공될 해저터널과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을 통해 보령을 해양레저와 치유,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제22회 보령머드축제 사흘째인 21일 축제 주 무대인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몸에 머드 마사지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9일 막을 올린 이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제공



아산 신정호 물놀이장 개장 [아산]아산시가 13일 신정호 물놀이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새 단장을 마친 신정호 물놀이장은 유아풀과 물놀이용 조합놀이대, 워터드럼 등 신규 놀이 시설을 추가했으며, 수영장, 의무실, 그늘막, 데크광장 등을 마련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했다. /아산시 제공

## 부여군, 세계유산에 불 밝힌다

### 정립사지와 나성에

### 야간 경관조명 설치

[부여]부여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여 정립사지와 부여나성에 세계유산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했다.

관람동선을 따라 따뜻한 색감과 은

은한 광량의 보행조명을 설치해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했고, 담장 아래는 막대형 LED조명기구를 연속 배치하였다. 정립사지 연지 및 경내·외 수목에 편온하고 안정된 야간 투광조명을 설치했다. 정립사지와 부여나성의 야간 경관조명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점등된다.

/부여군 제공

## 홍성군청사 이전 후보지 11곳 신청

### 홍성읍 10곳, 광천읍 1곳

### 평가 거쳐 10월께 최종 선정

[홍성]홍성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군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이전 후보지 주민 공모 결과 11개 지역이 이전 후보지로 응모했다.

이번에 접수된 후보지를 보면 대교1구개발위원회는 옛 홍성여고 맞은편 2만 4305㎡를 후보지를 비롯, ▲소향3구 부녀회(대표자 김나영)는 장애인체육관 맞은편 2만 1265㎡ ▲소향1, 2리

마을회(대표자 김응복·이범웅)는 소향리 공동묘지 8만 343㎡ ▲소향 3리 홍성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대표자 이상진)는 장애인체육관 맞은편 4만 2005㎡를 각각 후보지로 접수했다.

또 월산리 군청사후보지추진위원회(대표자 유태섭)는 홍주체육문화센터 건너 편 백월산 아래 10만 6831㎡ ▲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주민협의회(대표자 이종민)는 홍주문화회관 맞은편 옥암택지개발지구 4만 3709㎡ ▲홍성군청사 월산지구유치추진위원회(대표자 장준표)는 홍주요양병원과 농어촌공사

부근 4만2133㎡ ▲오관지역 이장단 및 상인협의회(대표자 백승열)는 현재의 홍성군청사 및 홍주초등학교 부근 3만 5438㎡ ▲세광현대발전위원회(대표자 조성우)는 세광아파트 부근 3만 8085㎡ ▲서부면이장협의회(대표자 장정훈)는 월산리 대구농원 부근 5만 2440㎡를 홍성군청사 이전 후보지로 추천했다.

또 광천읍 주민자치위원회(대표자 장순화)는 홍성 지기산 오토캠핑장 부근 5만 2305㎡를 후보지로 신청했다.

홍성군은 예비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9~10월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기원/홍주신문 hjn@hjn24.com

##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개소

### 서산·당진·예산·태안 관할

[서산]예천동에 자리잡은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오는 22일 예천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로써 서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군 지역 노동자와 사업주는 보다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고용·산재보험사업, 임금채권보

장사업, 퇴직연금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충남 서북부 산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산지사는 보령지사와 천안지사에서 분리·신설되었으며, 서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군 지역 2만 7464개 사업장 6만111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모씨(서산 거주)는 “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등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보령까지 가야 하니가 번거롭게 여겨져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가 사는 서산에 지사가 생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기뻐했다.

이번 서산지사 개소로 서산, 당진 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보려면 천안, 보령지사까지 1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차미애/충남농어민신문 kckc3838@daum.net

## 서산6쪽마늘 축제 농가소득에 큰 도움

### 2만7천명 방문 '복직'

[서산]서산6쪽마늘을 주제로 해미읍성에서 펼쳐졌던 '서산6쪽마늘축제'에 2만 70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해 성료됐다.

이번 축제 판매장에서는 서산6쪽마늘을 비롯해, 양파, 감자 등 지역농산물들이 인기를 끌며 3억2000만 원 판매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 /서산시 제공

## 금강여울축제, 즐기는 축제로

### 5000명 방문 농촌 추억 선사

[금산]지난 12일부터 2일간 개최된 금강여울축제가 다채로운 체험 행사 속에 관광객 5000여명이 찾아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나룻배 체험 및 다슬기 잡기 체험과 어린이 물 체험은 무더운 여름날 강바람의 시원함과 체험의 재미가 보태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금강변 시골길을 따라 떠나는 경운기 투어와 금강여울열차, 여치집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은 관광객에게 아련한 농촌의 추억을 선사했다.

여기에 넉넉한 시골의 인심을 담

은 열무국수, 울갱이해장국 등도 여름철 별미로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금산군 제공



## 국악협회 청양지부 충남국악제 장려상

[청양] (사)한국국악협회 청양군지부가 제14회 충청남도 국악제에 출전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국악제는 지난 7일 예산군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사물놀이·명창명부 등 명인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비보이와 판곡의 만남 향연으로 펼쳐졌다.

이번 국악제에는 청양군을 비롯한

15개 시군 국악협회 지부에서 출전했으며, 민요, 사물놀이, 무용, 설장구 등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청양군지부에서는 류인자·곽대회·손경옥·한광희·최순연·민문순·김오목 씨 등 경기민요분과회원 7명이 출전했으며, 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이순금/청양신문사 ladysk@hanmail.net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 이끌자

김한태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김한태 의원(보령1)의 요청으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김한태 충청남도의회 의원 ▲박정주 충청남도 해양수산물국장 ▲이수형 보령 시청 미래사업과장 등이 나서 의견을 나눴다.

김한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과 분위기 확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도와 시는 물론 민·관·산·학이 합심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자"고 말했다.

# 성별격차 줄이는 예산 편성 강조

김연·이공휘 의원 강의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과 이공휘 의원(천안4)은 지난 16일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중요성과 작성 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기금·성인지·성과예산 업무

담당자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연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공휘 의원에 게 강의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두 의원은 각각 성인지 예산 작성시 유의사항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기준 등을 강의했다.

# 충남도교육청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 의문

오인철 의원 제기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5)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최근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신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이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임명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하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앞뒤 맞지 않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진행된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당시 '교육연수원장 직위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공고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교육연수원은 교원 및 교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로서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이해나 협조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충남도의회 무용론'이란 도민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장의 개방형직위 공모를 위해 올 1월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2일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개방형직위 교육연수원장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명이 응시, 이달 3일 교육연수원장 개방형직위 면접시험을 위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 제313회 임시회 5분발언

#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 해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충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한



김석곤 의원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손꼽았다. 김 의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다"며 "지금 이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축제 적절한 예산분배 촉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축제의 경제 유발효과 과대평가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만 소비되는 축제가 아닌 확고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축제든 엑스포 또는 박람회



김연 의원

회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축제의 경제 유발효과가 과대평가 되고 있다"며 축제 효과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악취 민원 처리 협의체 구성 제안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악취방지법과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민원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가치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기술



김영권 의원

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며, 권한도 시·군, 충남이 모두 다르다 보니, 민원에 대한 처리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 그리고 충청도 관계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중증장애인 시설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관련시설의 확대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장애 특성을 배려한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장애인



방한일 의원

거주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742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시설 유형 개발과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주문했다.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이뤄져야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의원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직 과업이 있을 때마다 애꿎은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소 산업 육성 대책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 수소 산업 육성 대책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의 선도 아래 원전 감축 및 탈석탄화가 가속화되는 등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소산업활성화 TF팀을 구성



이계양 의원

해 정부사업 유치 및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타시도와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충남만의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040년까지 수소차 49만 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현장, 회계 문제점 개선 절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회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착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의원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이라는 큰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 난시청지역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난시청지역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전 의원은 5분발언에서 '충남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제기하고 도민 모두가 난시청으로 차별과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

KB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TV방송은 4개의 기간국과 21개의 간이보조국(TVR)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충남은 산이 많아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제313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적극 대응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12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조길연 의원(부여 2)은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뒤, “세수의 증액보다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비정규직 때 보다 처우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갈등이 없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의원(논산1)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이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는 가”라고 물어보며, “자치경찰제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현 의원(아산4)은 “당진·평택항 대응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한데, 언론홍보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활동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민간인 위령사업



과 관련하여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이 사업은 발굴뿐만 아니라 치유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도에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미래산 정책관,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울 업국, 공보관, 충남테크노파크, 공동체 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 강화해야

#### 문화복지위원회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가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12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연 의원은 “이제 10년을 훌쩍 넘는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반적으

로 다문화 가족 사업을 다시 점검하여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인식개선과 성년이 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여성정책개발원의 노조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찾은 갈등이 불거지는 원인 분석과 갈등 해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란 의원은 “앞으로 알려지지 않

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은 만큼 이들을 발굴하고 그 공적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당부했다. 여운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8000여명이라고 추정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질의하며, “통계자료의 출처, 통계 기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목표 및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기영 의원과 황영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이 이슈화 되며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이주여성 전문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업용수 공급 사각지대 해결 시급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음)는 지난 15일 열린 제313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사업이 예산대비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동리지역 외에 사각지대에 경작지를 둔 일부 농민들

은 눈앞에 설치한 저수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음 의원(천안1)은 “도나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해 시행하는 대규모 용수확보 사업보다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20만원을 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

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에서 농민이 시·군에 하나밖에 없는 농협 중앙회를 방문하여 발급을 해야 하다 보니 불편이 많다”며 “읍·면단위 지역농협에서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농작업 지원자가 적체적소에서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농작업지원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례회에서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이밖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등을 상대로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체계적인 도로 관리·시설물 적기 정비 주문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지난 11일 종합건설사업소와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도로 관리 및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역량 결집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5월 17일

소방헬기 추가도입 촉구 결의 이후 김형도 의원이 앞장서 국회와 소방청을 오가며 도입의 당위성과 국비 지원 건의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항공 대응력 및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올해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214개 지구에서 시행 중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급경사지 등 위험구간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점검 및 보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마철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교통공단 인지



기능검사를 임대하여 고령 운전자가 신체적 운전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 등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

### 보건교사 증원배치 적극 검토해야

#### 교육위원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했다. 오인철(천안6) 의원은 “43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감 2명을 배치할 수 있

지만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1명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과밀학급 학교 보건교사 배치 역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석곤(금산1) 의원은 역시 과밀학교 보건교사 증원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밀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 대책마련과 함께 먼지역 보건교사와 연계해 농어촌지역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의 보건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화(홍성2) 의원은 “방과후를 이용해 유투버, 크리에이터 등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내년 전국로봇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식재료납품업



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 운영상황을 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0만 도민 행복 위해 초심으로 뛴 것”

## 인터뷰-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충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역동적으로 달려온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충남도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정활동 주요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지난 1년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도민행복을 위해 충남발전을 추구한 여정이었습니다. 총 8차례 회기 동안 331개 안건의 심의 의결하고, 도정 주요현안사업 현장방문을 52회나 실시해 정제되어 있는 의회가 아닌 실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여건에 능동적 대응하고자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의회 제도개혁 TF 운영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사무처 기구확대 ▲의정모니터 운영 등의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활발한 대외협력과 국제 교류를 통한 선진의회로 발돋움한 한 해였습니다. 시도광역협의회와 연계하여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과 국제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6개국 11개 지방의회 등과 협약체결을 해냈습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4회 57명 137건의 안건을 가지고 도민 권익 향상 방안의 돌파구를 찾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597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꼬집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강화 더욱 힘쓰는 반면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충남도의 현안 세 가지와 해법을 말한다면

“우선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사업입니다.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추진계획에 예산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천안·아산 지역에는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

니다. 이는 택지개발, 각종 기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천안아산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도와 협력하여 천안·아산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 전체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반면 수도권은 제외된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내포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입니다. 충남 서해안지역에는 전국의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 위치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명이 통상 3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충남도와 힘을 합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의 수명을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도의회의 입장은

“지난 1월 9일 양승조 도지사와의 ‘인사 청문협약’을 맺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시행 중에 있습니



### 8차례 회기 331개 안건 심의·의결 52회 현장방문으로 행동하는 의정

### 정책위원회 출범·제도개혁 TF 등 신규 시책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

### 혁신도시 지정·노후화력 폐쇄 등 현안 산적...집행부와 협업 강화

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등 일부 한계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나?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며, 분권은 선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근본 이념이자 주민참여권 실현의 근간입니다. 지난해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와의 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 주요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법규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중지를 모아 구체적인 실천행동

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11대 의회 들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있다면

“우선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의원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도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회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분과별 과제 연구 활동을 통해 도·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제도개혁 TF를 구성해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과 지원체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인 관행 등을 없애고 발전된 의회 상 정립을 위해 새로운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기구확대 개편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 명칭변경하면서 예산 분석팀과 예산조사팀 2개팀 신설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입법·예산·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 도민들에게 한 마디

“220만 도민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 정당 등 각계각층을 대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감 의정, 의원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을 3대 비전으로 정하고,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는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빈틈없이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회,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견인하는 의회, 도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시론

##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이선영  
도의원(정의당, 비례)

“도의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해 어렵게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노회찬 의원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해주면서 당부한 말이다. 사실 대학 졸업 후 학교 행정

실의 비정규직으로 20여 년을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 직장인에게 노회찬 의원은 직접 만나기도 힘들 것만 같던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노회찬 의원이 비록 거대 양당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작디작은 진보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는 결코 작은 인물은 아니었다. TV 토론에서 그는 정곡을 찌르면서도 위트가 넘쳤고, 웃음 띤 얼굴로 토론을 하면서도 동시에 ‘삼겹살 불판’ 같은 뜨거움도 보여줬다.

노회찬의 거대함은 그가 발 딛고 선 영토에서도 기인했다. 그는 6411번 버스 첫차에 몸을 실은 ‘투명인간들’과 함께 서 있었고, 갈 곳 없는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었다.

대한민국에서 소외되고 처절했으며 외롭던 이들 곁에서 있었으니 그 영토가 얼마나 광대했을까.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어느 순간 정치의 절박함에 눈을 뜨게 됐다. 그

리고 대중 정치인으로 나서게 됐고 노회찬 의원과의 짝을 지물랐던 연도 시작됐다. 그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했다. 당선이 된 직후 직접 축하를 건네며 내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그 때, 수화기 너머의 그 따뜻함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노회찬 의원은 이상을 품되 진보정당의 능력을 끝없이 묻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더 처절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원

했고, 시대 과제에 맞게 진보정당도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말과 실천도 꾸준했다.

척박하고 메마른 정치현실에서 첼로를 연주하며 대중의 마음을 녹였던 진보정치의 거두 노회찬 의원이 우리 곁을 떠 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꽃들을 피우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그와 함께 한 모든 이들이 증명할 것이다.

그를 그리워하며,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충남형 해양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천수만 역간척으로 해수유통,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 치유산업, 대한민국 미래 산업으로 육성
-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업도시 건설 및 일자리 증대

# 충남도정



2019년 7월25일 ~ 8월4일 제850호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 “국제 질서 파괴,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라”

### 충남도의회, 공동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현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조치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충남도의원 전원이 한 뜻으로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발언하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고 있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

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

에 발맞추어 관련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접연결 해야

### 조승만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다음 달 착공식을 앞둔 신안산선과 서해선 북선전철의 연결을 환승이 아닌 당초안인 직결연결로 촉구함이 골자다.

만일 서해선 북선전철과 신안산선을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연결한다면 우리 충남도민이 꿈꾸던 ‘홍성에서 여의



조승만 의원

도까지 1시간 내 진입’은 어렵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해선 북선전철 건설현황과 향후운영계획 ‘에 따르면 서해선 북선전철과 신안산선의 연계가 직결대신 환승으로 계획되어 있어 평택~오송 북복선 천안 아산역 무정차계획 이후 도민이 받는 상실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

가 밝힌 바와 같이 “두 노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장항선과 연계시 신군산에서 여의도까지는 1시간 25분 소요된다” 이는 직결연결을 뜻하므로 정부가 변경없이 원안대로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조 의원은 “예산부족과 사업성의 이유로 고령자가 많은 충남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 라는 서해선북선전철사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영우 의원 선임

### 부위원장에 안장현 의원

충남도의회 제11대 2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영우(보령2)의원을, 부위원장에 안장현(아산4)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명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내년 7월 9일까지이다.

이영우 선임 윤리특위 위원장은 선임 직후 “타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윤리 및 청렴의 기준이 엄격해졌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청렴의회를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이영우 의원



안장현 의원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도의원,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도의원의 윤리식 제고 및 자율적 위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도의원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 홍성의료원장 도덕성·경영능력 검증

###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박래경 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덕성 검증과 경영능력 평가로 나눠 실시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인사청문제도는 도지사의 인사에 앞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공기관장 선임에 거름망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성과 민주성을 부가시키기 위해 작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날 특위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경영수지 악화 등 경영 문제가 다수 산적해 있는 홍성의료원의 현실을 감안, 운영 방향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또한, 도덕성 평가와 경영능력 평가로 나눠, 후보자 개인적인 자질과 의



료원 운영 능력까지 검증한 후 최종 적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연 위원장은 “도에서 전액 출자해 운영 중인 종합 의료원이 지역민에게 외면 받는 현실을 감안, 도민의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부활하기 위해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공직가치관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홍성1) 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원장이란 직

책의 명예보다는 준법정신과 청렴성이 더 중요하며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요구했다.

홍성의료원장 후보자는 정책 소견으로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며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의료진과 전문적인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할 및 장기요양 시설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친일잔재청산 특위 활동 본격화

### 김영권 위원장

### 이선영 부위원장 선임

충청남도의회 지난 18일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영권 의원(아산1), 부위원장에 이선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지난 6월 25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구성 의결된 친일 잔재 청산 특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내 및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와 싸우다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고자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도내 및 교육현



김영권 의원



이선영 의원

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 잔재의 현황을 청취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는 친일인사의 교장 사진 게시 문제와 일제시대 작곡·작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가 등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는 향후 충남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제의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데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